

“지역 발전에 써달라” 전 목포상의 회장 7억 기부

60여 년 경영 시내버스 사업 청산 후 사회공헌

전남 목포시는 이한철 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대중교통과 인재육성 등 목포 발전을 위해 기부금 7억 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60여 년간 경영해 온 시내버스 사업 종료료 지난 2023년 공식 발표하면서 법인 청산 후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의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목포시의 공영버스 도입 준비가 완료되면서 지난해 12월 31일 사업을 종료했다.

목포시는 기부금 7억 원 중 5억

원은 이 전 회장의 목포시 대중교통 발전에 계속 기여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대중교통 분야에 사용한다.

나머지 2억 원은 인재육성재단과 사회복지재단에서 각각 1억 원씩 기탁받아 지역 학생의 장학금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60년간 시내버스를 운영하며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을 사회공헌으로 마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목포시가 공영버스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



이한철 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기부금 기탁식. /목포시 제공

것 같아 좋아분하게 정든 시내버스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김재욱 기자

광주시교육청, 소통 확대...청렴도 끌어올린다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3대 전략 12대 중점과제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청렴도를 끌어올린다.

시교육청은 청렴한 광주교육 구현을 위해 15일 ‘2025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청렴 인프라 구축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 56개 세부과제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청렴도 하락의 주원인으로 분석된 외부제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민 제감형 청렴정책을 운영한다.

먼저 학교운동부 청렴도 확대를 위

해 학부모 소통·참여활동을 강화한다. 학부모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관리자, 학교운동부 담당자와 함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렴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 1종목 1감사관 배치를 통해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정작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과후학교는 외부강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은 운송용역 입찰 및 계약 시 공동수급 확대, 계약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인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한다.

청렴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반부패·청렴 추진협의체를 꾸리

고, 교직원으로 구성된 ‘청렴 서포터즈’를 조직해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펼친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청렴 노력도 평가는 올해부터 분청 각 부서까지 확대하고, 1기관(부서) 1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도록 한다.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활동에 나선 계획이다.

인사 분야는 교직원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자료 공개를 확대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일시적인 성과보다 지속적인 신뢰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청렴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전남도립도서관 독서 환경 개선 전국 ‘우수’



전남도립도서관이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가도서관위원회장과 포상금 4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4년 시행계획 총 49개 과제 중 25개 과제를 수행해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과 ‘공공보존 기반 마련’ 두 개의 과제가 우수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은 신규 도서관 확충 및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독서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애니메이션, 정원 등 지역산업 관련 특화주제와 연계해 신규 개관한 순천시립어울림도서관의 운영 부분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공동보존 기반 마련’은 지역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도내 공공도서관 소장 공간 부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립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구축·운영한 것으로, 충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천시 용당동방길 벚꽃축제 수익금 기탁. 순천시 삼산동은 제11회 용당동방길 벚꽃축제가 2000여 명 시민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된 가운데, 축제 수익금 약 362만 원을 산물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포스코플로우-월드비전, 3년째 글로벌 구호품 운송 지원. 포스코그룹 종합물류회사 포스코플로우와 국제구호개발 NGO월드비전이 글로벌 구호품 운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3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장기간 지속중인 홍해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경색이 심해진 상황이지만, 글로벌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차질 없이 운송할 계획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 장애인과 따뜻한 동행.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광양 백운그린랜드에서 열린 제3회 광양시 거북이 마라톤에 참여해 지역 사회 장애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서구, 편견 벽 깨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시·수화 체험·텐덤라이딩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아너스·자원봉사센터 텐덤바이크 기부...연대·나눔 실천

서구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오는 17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장애 인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는 ‘함께하는 위(W)로, 행복한 서구로’를 주제로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서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의지를 북돋을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17일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장애인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장애인협회장, 장애인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장애인들이 출연하는 각종 공연과 함께 미담 사례 소개,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증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서구청 1층에서는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작품전시회가 열리고, 야외광장에서는 ‘폭짜 수어수다’ 수어 배우기, 보장구 수리·세척 등의 홍보·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3층 이음홀에서는 ‘중증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를 개최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발표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주말인 19일에는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고액 기부자 그룹인 ‘서구아너스’와 광주영광원이 함께하는 텐덤바이크 라이딩이 펼쳐진다.

이 행사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전거를 함께 타고 광주전변을 달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텐덤라이딩에는 서구아너스와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텐덤바이크 10대씩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담양읍 승일식당, 나눔으로 온기 전해

후원금 600만 원 기탁...김장 나눔 행사에 사용 예정



담양읍 승일식당 김갑례 대표의 자녀 박강복 씨가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5일 전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한 후원금은 담양읍 백동주공2단지 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강복 씨는 “이번 후원을 통해 지

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뜻깊은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화 담양읍장은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됐다”며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 복지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주암면,故조달진 소위 추모공원 환경정화

추진단 회원 10명, 풀베기 봉사 활동 추진

순천시 주암면시민정원추진단은 ‘6·25전쟁 호국영웅 故조달진 소위 추모공원’을 비롯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한지 등 풀베기 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추진단 회원 10명이 참여해 관광객들에게 애국심 고취와 함께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해충방역 등으로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조방훈 시민정원추진단장은 “바쁜 와중에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깨끗해진 마을을 보니 힘들었지만 땀 흘린 보람이 있다”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호국용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아름다운 주암면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숙 주암면장은 “이른 아침부터 관내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시민정원추진단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주암을 위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故조달진소위는 1928년 11월 18일 순천시 주암면에서 태어나 6·25전투에서 ‘탱크잡는 불사조’로 한국군 최초 미국 동성훈장 1호를 수여받는 등 영광스러운 호국영웅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교육행정 전문적학습공동체’ 발대식

광양교육지원청, 자율적 연구·실천 중심 활동 추진



광양교육지원청은 학습공동체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적 학습과 협업을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2025 광양교육행정 전문적학습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습공동체는 ▲신(新)박한 청렴 With MZ ▲시리 ▲AI 원포인트스 ▲페활랑(페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양) ▲학교 안전 발전 연구회 ▲에듀테이너 등 6개 팀으로 구성됐다. 각 팀은 광양 지역의 교육행정 현안을

주제로 자율적인 연구와 실천 중심의 활동을 추진한다.

각 팀은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창출 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 예정이다.

광양교육청 김여선 교육장은 “이번 학습공동체 발대식이 광양교육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각 팀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준익 기자